
2012년 멕시코 대통령선거 파노라마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멕시코에서 2012년은 무엇보다 '선거의 해'이다. 정치와 관련해서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거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멕시코시티 시장, 6개 주의 주지사 선거, 상·하원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멕시코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정치지형이 짜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주의 체제를 따르는 멕시코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멕시코 혁명 이후, 카에스 대통령은 6년 단임제 원칙을 제도화했고, 이것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 헌법이 연방주의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비록 2000년 이후 국민행동당(PAN)이 정권을 잡자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반대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행정부는

의회나 사법부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브릭스(BRICS)를 대체할 국가로는 한국, 터키가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멕시코도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것은 비록 현재 조직범죄와의 전쟁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실패한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멕시코이지만 그 저력과 위상만큼은 무시 못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가난, 고용, 불평등, 범죄, 부패, 무능한 통치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2012 대통령선거는 멕시코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바로 2012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보기 위한 목적에서 쓴 것이다. 따라서 2011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함의, 제도혁명당(PRI)이라는 '공룡의 귀환' 문제, 2006년 대선 패배 후 다시 좌파의 대선후보로 돌아온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갖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에 초점을 맞춰 2012년 대선의 파노라마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II. 2011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함의

2011년 지방선거는 올해의 대선을 전망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작년 7월 3일 치러진 멕시코 주, 코아윌라 주, 나야리트 주의 주지사 선출 선거와 11월 13일 치러진 미초아칸 주지사 선거는 모두 제도혁명당의 승리로 끝났다. 먼저 멕시코 주에서 제도혁명당 에루비엘 아빌라 비에가스 후보는 64%의 득표율로 승리를 쟁취했다. 그는 녹색당과 신연합당의 단일 후보였을 뿐 아니라 전 멕시코 주지사였던 페냐 니에토의 후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집권 여당인 국민행동당 후보 루이스 펠리페 브라보 메나는 12%, 민주혁명당(PRD)

후보 알레한드로 엔시나스 로드리게스 후보는 24% 득표하는데 그쳤다. 코아윌라 주에서 제도혁명당의 루벤 모레이라 발데스 후보는 62%, 국민행동당의 기예르모 아나야아마스 후보는 35%의 득표율을 보였다. 앞의 두 후보의 득표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나아리트 주에서 제도혁명당의 로베르토 산도발 카스타네다 후보는 47%를 획득했다. 이것은 39%를 획득한 국민행동당의 마르타 엘레나 가르시아 후보보다 8% 정도 앞서는 것이고, 11%의 득표율을 보인 민주혁명당의 과달루페 아코스타 나랑호 후보와는 큰 격차가 나는 수치이다.¹⁾

무엇보다 멕시코 주와 코아윌라 주에서 제도혁명당 후보가 6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은 올해 대선에서 제도혁명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멕시코 주는 정치의 심장부인 멕시코시티에 인접해 있는 멕시코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다. 1,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 재정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멕시코 주는 2012년 대선 표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지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제도혁명당 후보가 64%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1년 7월 지방선거 결과는 멕시코 정치상황을 압축해 보여주었다. 칼데론 대통령은 브라보 메나가 주지사 후보가 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메나는 이미 18년 전 국민행동당 후보로 나온 전력이 있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주혁명당 후보보다 12%나 덜 득표했다는 것은 국민행동당의 참패를 의미했다. 결국 메나의 패배는 칼데론 대통령의 여당 내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1) http://consulta.mx/web/images/eleccionesmexicopdf/20110604_Comparativo_PREP_Estimaci%C3%B3nVoto.pdf 참조.

2011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의 파우스토 바예호 피게로아 후보는 35.44%를 득표하며, 민주혁명당이 장악했던 미초아칸 주지사직을 넘겨받았다. 현 칼데론 대통령의 여동생인 루이사 마리아 칼데론 이노호시는 32.63%를 획득했으며, 민주혁명당의 실바노 아우레올레스 코네호는 28.81%의 표를 얻었다.²⁾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선전했지만 제도혁명당을 이기지 못했다.

2011년 7월과 11월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이 유권자의 표를 유인하기 위한 무슨 특별한 선거 전략을 선보인 것은 아니었다. 제도혁명당은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간의 집권과정에서 보여준 부패, 반민주, 수직적 구조, 권위주의의 이미지를 탈피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예전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은 투명하지 못한 후보 인선을 보여주었다. 당권을 쥔 사람들의 친구, 지인들을 후보로 내세워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 연합 후보들이 나선 푸에블라 주, 시날로아 주, 오아하카 주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선거와 11월 선거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후보 선정 과정을 보여주었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게다가 멕시코 주에서는 70%를 상회하는 전 주지사 페냐 니에토 후보의 인기, 집권여당과 칼데론 대통령의 실정이 제도혁명당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4개 주 주민은 치안 부재, 범죄와의 전쟁 실패, 경제위기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정책 실패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유권자들은 멕시코 주의 일부 문제까지도 칼데론 대통령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보았다. 멕시코 좌파는 폭스에서 칼데론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민행동당 11년 집권 동안 멕시코 국력이 쇠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멕시코는 치안부재, 마약과의 전쟁 실패, 경기침체 때문에 국제 언론으로부터 '실패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2) http://es.wikipedia.org/wiki/Elecciones_estatales_en_Michoac%C3%A1n_de_2011 참조.

전직 멕시코 외무부장관이었던 호르헤 카스타네다는 국민행동당의 유일한 희망이 '경제회복이라는 기적'뿐이라며 여당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2012년 집권여당인 국민행동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약하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침체,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유럽연합의 금융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때문에 세계 경기의 호황이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III. 부활하는 공룡

2011년 7월과 11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2000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거대한 공룡 정당인 제도혁명당이 부활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제도혁명당은 32개 주 중에서 20개 주를 통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선거 결과를 보면 제도혁명당은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예를 들면 현재 500개 하원의원 의석 중 237개를 제도혁명당이 가지고 있다.

11년 전 대선에서 패했을 당시 일부 학자들은 제도혁명당이 계속적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멕시코 정치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학자들은 제도혁명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정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전망 모두 틀렸음이 드러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00년 대패한 제도혁명당이 어떻게 선거를 통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가?

2011년 지방선거 후 언론은 제도혁명당 후보들의 승리와 함께 국민행동당의 패배를 강조했다. 왜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패배했는가? 직접적인 이유는 국민행동당이 집권한 후 보여준 빈약한 성과 탓이다. 칼데론 대통령이 조직범죄와의 전

쟁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가 2006년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마약, 조직범죄, 테러와 관련해 사망했다.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도 전대미문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게다가 희생자의 대부분은 무고한 시민으로 밝혀졌다.

이제 멕시코는 테러와 폭력에 의해 국가안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빠졌다. 좌우 할 것 없이 언론은 국민행동당이 공약한 개혁도 달성하지 못했고, 가장 기본적인 폭력과 테러도 통제하지 못해 치안부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집권 초반 66%에 달했던 칼데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9%까지 떨어졌다. 정치분석가들은 2011년 지방선거 결과에는 국정을 실패로 이끈 칼데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담겨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단히 말하면 먼저 경쟁력 없는 후보의 선출, 좋은 공약이나 대안의 부재, 게다가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대한 불만이 선거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정부가 범죄조직과 폭력, 테러를 통제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2011년 선거에서 좌파를 대변하는 민주혁명당도 쓴맛을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학자들은 이 당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심을 읽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계속되는 당내 갈등과 권력다툼,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돌출 행동과 발언이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혁명당의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어 투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민주혁명당은 최소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체성이 혼미해졌다는 점이다. 80년대 말 제도혁명당에서 분리될 때 중도좌파 노선을 천명했으나 현재는 제도혁명당과 차별화되는 이념적 신선함이나 정책적 대안이 없다. 둘째, 조직이 약화되었다. 최근 선거에서 일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 조직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정당과 동맹했기 때문이었다.

제도혁명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우

선 정치학자들은 제도혁명당이 71년간 멕시코를 통치했던 저력이 있는 정당으로서 뛰어난 생존본능과 실용적 노선을 강조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 삼색당(제도혁명당의 별칭)은 지지 기반과 조직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 주로 북부에 지지 기반을 둔 국민행동당이 나 중남부에 지지 기반을 둔 민주혁명당에 비해 전국정당의 면모를 지닌 강점이 있다. 특히 이 당은 수십 년간 거느렸던 조직을 선거와 정치에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제도혁명당에 호감을 지닌 산업별 노조나 노동자, 농민 조직에 통제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국민행동당이 주로 도시와 산업지역, 가톨릭 보수층, 젊은층 유권자를 동원한다면, 제도혁명당은 농촌과 지방, 빈민층, 장년층, 노년층,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중산층에도 고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커지면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여론이 확산된 데다 제도혁명당 소속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 유권자들이 신뢰를 회복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가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페냐니에토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혁명당의 권좌복귀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VI. 좌파연대의 대선 후보로 돌아온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좌파연대(PRD, PT, Partido de Convergencia)는 2011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 및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다른 당보다 앞서 2012년 대선후보를 확정지었다. 경선 승리의 주인공은 2006년 대선에서 0.57%(25만 표)의 표차로 칼데론 대통령에게 석패했던 민주혁명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였다. 그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끊임없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투사로서의 강성 이미지를 드러냈다.

작년 7월 레포르마 그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성 좌파 이미지를 가진 오브라도르가 66% 지지를 받은 반면, 현 멕시코시 시장으로 온건 좌파를 대표하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27% 지지를 획득한 데 그쳤다.³⁾ 같은 해 10월 여론조사 기구인 미토프스키도 좌파 3당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71%를 획득한 오브라도르가 18% 지지를 얻는 데 그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를 가볍게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⁴⁾

에브라르드는 자신이 속한 민주혁명당 내부 조직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의 기반도 약한 단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가진 멕시코 좌파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은 로페스 오브라도르뿐이라는 것이 다시 확실해졌다. 이것은 2006년 대선 패배 이후 지난 6년간 전국 각지를 돌며 다양한 좌파 인사를 만나 자신의 입지를 넓혀온 노력의 결과였다.

민주혁명당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최종 결과에 승복했다. 그는 분열된 좌파는 결국 파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브라도르에게 광범위한 진보 진영의 연대와 조직화를 제안했다. 게다가 오브라도르 측으로부터 정치 1번지인 멕시코시티의 차기 시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다. 경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지분도 확보했다. 그리고 이성적이며, 지극히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에브라르드는 우파 정치인에게도 자신이 대화가 가능한 인물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패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승리자이다.

3) <http://www.proceso.com.mx/?p=288015> 참조

4) Ibid.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신뢰받는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에브라르드는 대중에게 각인된 긍정적 이미지와 탁월한 행정 능력을 기반으로 2018년을 준비할 토대를 마련했다.

오브라도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2006년 대통령에 취임했다더라면 멕시코가 폭력과 치안부재, 경제침체의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EI pais, 2011년 10월 13일). 그리고 자신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당내 인사뿐 아니라 인권단체와 시민운동 지도자를 포함하는 공동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고, '진보주의 운동'도 일으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직범죄와 싸우고 있는 군대를 6개월 내 병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직범죄와의 전쟁의 원인은 가난과 불평등, 사회 양극화, 젊은 층의 실업, 교육 기회의 박탈과 같은 것들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가 폭력과 치안부재의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멕시코 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려면 가장 먼저 사회정의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테러와의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안을 일신하고 진보와 정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을 약속했다.

선거전문가들은 오브라도르가 제도혁명당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오브라도르는 제도혁명당이 지난 72년간 억압과 권위주의, 부정선거, 비민주적 행태를 일삼았던 부패한 정당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제도혁명당의 귀환은 곧 멕시코 민주주의의 후퇴요 과거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한 국민행동당에 대해서는 지난 12년간의 실정을 집중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5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테러와의 전쟁, 치안부재 상황과 경제침체가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다른 잠정적 대권 후보자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강점

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중 연설에 뛰어나며 토론에도 능하다. 집권욕이 강하며 정적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함정 속에서 살아 돌아온 전력도 있다. 그의 정치 역정을 살펴보면 위기를 정면 돌파해 기회로 만드는 능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소수의 좌파 그룹에 해당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확실한 열성 지지층도 가지고 있다. 그는 2006년 대선 패배 이후 좌절의 시기를 보냈으면서도 결코 정치 감각이 둔해지지 않았다. 주류 정치무대에서는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노동당과 같은 좌파 군소정당과 유대를 강화했고,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피신처 삼아 천천히 대권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강성 이미지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 있다. 2006년 유력한 대선후보에서 3위로 밀려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V. 페냐 니에토의 독주와 변화의 조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젊고, 키 크고, 멋진, TV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같은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 대선후보는 이미 여성 유권자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1위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또한 20여 명의 제도혁명당 주지사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최근 선거를 치르며 축적한 경험, 인력, 전략을 보면 잘 기름칠해진 완벽한 기계 같은 느낌을 준다. 얼마 전 선보인 선거 홍보용 비디오를 보면 질적인 면에서 경쟁 상대의 광고용 비디오를 압도하는 면이 있다.

페냐 니에토 선거캠프의 전략가들은, 바스케스 모타 국민행동당 후보보다 오히려 펠리페 칼데론 현 대통령을 더 큰 적으로 인식한다. 최근 몇 달 칼데론 대통령의 동선은 도로, 교량, 공공사업의 개통식이나 완공식 참석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여당의 업적을 최대한 선전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기 당 후보인 바스케스 모타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비록 암묵적이긴 하지만 제도혁명당에게 투표하는 것을 곧 부패나 마약과 공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도 제도혁명당에게는 큰 부담이다. 선거전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선거공학적인 이론에 기초한 전략보다 단순한 메시지가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혁명당 선거캠프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도서전시회에서 페냐 니에토는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책의 저자와 작품을 혼동하고, 최저임금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또한 그는 예정되었던 이베로아메리카나대학교, ITAM, 몬테레이공대 등 주요 대학 학생과의 만남을 행사 직전에 취소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는 5월 6일 TV 토론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냐 니에토가 시나리오 없는 통제 불능의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후보가 아닌지 의심받았다(EI pais, 2012년 4월 27일). 결국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TV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유권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당인 국민행동당 후보인 바스케스 모타는 페냐 니에토 후보에 이어 여론 조사에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민행동당이 장악한 주에서 발생한 부패문제와 당원들 간의 갈등은 선거전에 임한 바스케스 모타 후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2006년부터 칼데론 정부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이다. 먼저 조직범죄와의 전쟁이 남긴 5만 명의 희생자는 여당 후보의 약점이 되고 있다. 이 전쟁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치안부재와 통제 불능의 '실패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었다. 또한 집권 초기 칼데론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용 창출이나 경제성장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런 것은 국민행동당이 제도혁명당의 결합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당이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바스케스 모타는 최초의 멕시코 여성 대선후보로서 중산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삶으로 체현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화를 중시하는 정치가란 이미지도 부각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도 함께 드러났다. 비센테 폭스 정권의 대변인이었던 루벤 아길라르가 평가한 대로 그녀의 선거운동 팀은 약하며, 전략도 부재하고, 선거전에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치평론가는 바스케스 모타의 이미지 속에서 국가최고수반으로서의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 때문인지 바스케스 모타는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후 열흘 만에 지리멸렬하던 대선캠프의 주요 멤버를 교체하고 선거 전략도 대폭 수정했다(El pais, 2012년 4월 9일). 외부 인사들을 수혈했으며, 폭스 대통령과 칼데론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뛰었던 노련한 선거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당내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에게 “바스케스 모타의 승리는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멕시코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스케스 모타는 칼데론 현 정부와도 다르다는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도르는 최근 자신에게 언론이 덧씌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타협하지 못하는 ‘좌파 카우디요’, 강경 노선의 ‘엑스프레소 좌파’ 이미지를 완화해 부드러운 ‘카푸치노 좌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연설 문에서도 과두지배자를 향해 자주 사용하던 ‘권력 마피아’란 공격적인 용어가 사라지고 있다. 급진적이고 강경한 발언은 생략되거나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노력 외에도 자신이 한때 ‘언론 마피아’라고 비난한 텔레비사(Televisa)와 같은 대중매체나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화해 손길을 내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표를 도둑질해 갔다며 비난했던 칼데론 대통령을 용서하겠다고 발표했다(El pais, 2012년 3월 24일). 그러나 그의 전략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만큼 위험성도 커 보인다. 그의 지지층은 아직도 그에게 강력한 좌파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180도 바뀐 모습은 그의 지지층을 낮설게 만들고 있다. 오브라도르는 더욱 빈번히 자신이 ‘멕시코의 톨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페루 대선에서 오안타 우말라가 강경 이미지를 유화시켜 페루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2006년 대선 이후 실추된 이미지와 중산층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는 전략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특히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접촉 빈도를 넓히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각인시키고 있다.

현재 세 명의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너무 일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적 해법이 요구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취할 구체적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외무부장관 호르헤 카스타네다를 비롯해서 48명의 멕시코 지식인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대선후보들이 멕시코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인 범죄와의 전쟁에 투입된 군대의 역할, 노동개혁, 세계개혁, 교육, 경제, 외교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각 정당은 자금과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행동당은 구조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체제에서 연방정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바스케스 모타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도혁명당은 현재 20개 지방 주를 운영하고 있어 대다수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은 민주혁명당이다. 치아파스 주와 케레로 주를 포함해 정치역학적으로 중요한 멕시코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실이 그나마 이 좌파 정당의 유일한 위안거리이다.

UNOTV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페냐 니에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국민적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선후보 중 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면에서 페냐 니에토가 높게 나왔다. 특히 보

건서비스 개선, 실업 문제 해결, 교육 개선, 마약, 치안, 경제, 부패 문제를 다른 후보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유일하게 가난의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페냐 니에토 후보의 독주는 미토프스키가 발표한 4월 29일 대선후보자의 대중적 이미지 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그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37%가 긍정적이고, 15%만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바스케스 모타는 25%가 긍정적, 19%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거꾸로 부정적 이미지가 28%로 높게 나왔다. 긍정적 이미지는 22%에 머물렀다.⁵⁾

선호도조사의 추이를 보면 페냐 니에토 후보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뒤를 이어 여당의 후보 바스케스 모타가 2위,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순위변동이나 수치의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대선후보자	2012. 2. 20.	2012. 3. 11.	2012. 4. 22.	2012. 4. 29.
바스케스 모타	29.7	30.0	26.9	27.8
페냐 니에토	48.7	47.6	50.1	48.2
로페스 오브라도르	20.9	22.0	22.3	22.6
콰드리 토레스	0.7	0.4	0.7	1.4
Total	100	100	100	100

출처 | <http://www.consulta.mx> p.12

가장 의미 있는 지표는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는 점이다. 국민행동당의 바스케스 모타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22%에 그쳤고, 민주혁명당의 로페

5) www.consulta.mx p. 8 참조.

스 오브라도르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12%밖에 없었다.⁶⁾

페냐 니에토 후보는 자신의 인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90일간의 선거전 중 절반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스케스 모타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공격뿐 아니라, 페냐 니에토의 말실수와 토론 기피현상이 마스크를 탄 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4월 25일자 『레포르마』는 페냐 니에토 41%, 바스케스 모타 29%, 로페스 오브라도르 27%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냐 니에토는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바스케스 모타 후보도 중부지역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에서 조금씩 상승했다 (『프로세스』, 2012년 4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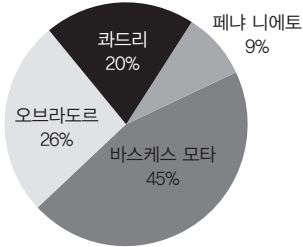
대선후보자 사이의 TV 토론회는 선거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2000년 대선 당시 비센테 폭스가 대통령이 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2006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의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상당한 표를 상실했었던 전례가 있다.

이번 5월 6일 TV 토론회 이후 실시된 앙케트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첫 번째 대선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5%가 바스케스 모타가 이겼다고 대답했다. 누가 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5%가 페냐 니에토가 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Ibid.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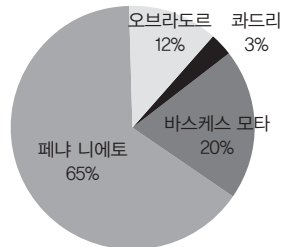
제1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누가 승리했는가?

| 최종 결과 |



제1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누가 패배했는가?

| 최종 결과 |



출처 | <http://www.eleccion2012mexico.com>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페냐 니에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것은 향후 지지 후보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표일이 아직 45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기가 선부르지만 다음의 전망은 흥미롭다. UNOTV가 후원하고 데모테크니 아가 실시한 4월의 여론조사에서도 페냐 니에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선거 당일의 결과는 두 자리 숫자의 차이는 아닐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유권자의 53%가 선거에 참여하고, 페냐 니에토는 39%(1,600만 명), 바스케스 모타는 31%(1,260만 명),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29%(1,200만 명)를 획득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1위와 2위의 차이가 8% 정도 벌어지는 선에서 마무리 되고, 2위와 3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El pais, 2012년 4월 17일).

VI. 맺으며

대선을 바라보는 멕시코 선거전문가들은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천만 명 이상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멕시코에서 SNS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또한 이미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미 텔레비사와 같은 언론재벌은 페냐 니에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El pais, 2012년 4월 12일). 또한 마약단과 조직범죄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타마울리과 주지사 선거에 제도혁명당 후보로 나왔던 로돌포 토레칸투 후보가 살해되었고, 5명의 주지사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에서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후보의 안전문제도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제도혁명당의 페냐 니에토는 다른 후보와 비교하여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감안할 때, 2012년 대선에서 제도혁명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현재의 여론조사대로 페냐 니에토가 대통령이 되고 제도혁명당이 권력을 잡는다면 어떤 제도혁명당이 돌아올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부패하고, 반민주적이며, 수직적 구조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가진 제도혁명당일지, 아니면 전혀 새로워진 제도혁명당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느 후보, 어느 당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언제나 그렇듯 지나친 신뢰나 예기치 않은 결정적인 실수가 오히려 제도혁명당을 침몰시킬 수 있다. 90일간의 대선 레이스는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다. 멕시코 대선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앞으로 45일간 어떤 복병이 나타날지, 혹은 어떤 돌발 변수가 우리를 기다릴 지 아

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직도 유권자 중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20%나 된다는 점도 선거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1994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당선이 확실시되던 제도혁명당 후보 루이스도 날도 콜로시오가 암살당한 일이 있으며, 2006년 대선에서도 8개월 전 2.5%의 지지율에 머물던 국민행동당의 칼데론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이변을 낳은 일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론조사도 허점이 많다. 2010년 주지사선거에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최종 선거 결과와 달랐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도 여론조작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주요 방송사와 언론이 공정성 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도 2012년 대선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도 한 차례 더 남아 있고, 점차 가중되는 선거 열기는 선거의 향방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멕시코가 '실패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Carrasco, Fernando Pliego(2007), *El mito del fraude electoral en México*, Editorial Pax, México.
Consulta Mitofsky. www.consulta.mx.
- Covarrubias, Israel(2010), “El PRI como orilla de la democracia. Después de las elecciones de 2010 en México”, *Nueva Sociedad*, Núm. 230.
- Díaz, Cabañas(2010). “Las dificultades de las izquierdas en México”, *Metapolítica*, Vol. 14, Núm. 71.
- Oyarvide, César Morales(2011), “El fracaso de una estrategia: una crítica a la guerra contra el narcotráfico en México, sus justificaciones y efectos”, *Nueva Sociedad*, Núm. 231.
<http://www.eleccion2012mexico.com>
<http://www.proceso.com.mx/?p=288015>
http://es.wikipedia.org/wiki/Elecciones_estatales_en_Michoac%C3%A1n_de_2011